

07 2013년 No.04

하나 행복가이드

기초 연금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시사점 한국 여성의 노후준비 상황과 시사점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6325 - 3014



Contents

이슈 포커스	기초 연금제도를 둘러싼 논란과 시사점 한국 여성의 노후준비 상황과 시사점	01
노후 재무설계	증권사 L부장, 현재 금융자산 안정적 운영만으로 노후 준비 충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현금성자산 확대 7월 주식시장은 양적완화 축소우려로 단기 변동성 확대 전망	09
국내외 단신	英, 은퇴 계획 수립의 5가지 장애물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추진 빠른 고령화 진행에 대용하여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14
상품브리프	2013년 새롭게 변경된 상품인 연금저축계좌	18
행복한 노후디자인	행복한 Well-Aging - 치매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20
하나 뉴스	하나은행−하나SK카드, 해피포인드 더블 체크카드 출시 등	22
연금 통계		23



기초연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 및 시사점



수석연구원 주 윤 신 (ysju@hanafn.com)

"2008년 도입된 現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낮은 급여 수준으로 국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이에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한 뒤 국민연금 과 연계하는 국민행복연금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후 사회 각계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3월 보건복지 부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여전히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 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급여 수급이 본격화되기 전에 급여 적절성과 제도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 한 현실적 제도 설계가 시급한 시점이다"



난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 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존 기초노령 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한 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국민행복연금 방안을 확정하였다. 국민행복연금 방안 이 발표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보건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난 3월 국민행 복연금위원회를 발족하였지만, 의견 충돌로 3개 단체 가 탈퇴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현 기초노령연금 제도 및 인수위 안, 그리고 국민행복 연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을 비교하고, 향후 정 책방향 제시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급여 적절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現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둘러싼 논란 지속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가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큰 축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 금이 보완적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과 함께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現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 인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45%)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수준인 매월 최대 9만 6.800원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現 세 대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수단을 만들어 주기 위 함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시 이미 노인들이 었던 세대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해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이 60%에서 40%로 떨어짐에 따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현실을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現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낮은 급여 수준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 및 국민연금 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전반적 구조개혁에 대 한 부담으로 노후소득 보장보다는 보완의 형태로 기초 노령연금제도가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급여 적절성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불가피 하기는 하나, 현재와 같은 준 보편적 제도를 유지할 경 우 급여 인상 시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장기적 관 점에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급여 적절성과 제도 지속 가능성 모두를 충 족시키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 지가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민행복연금 방안에 대한 불만 제기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한 뒤 국민 연금과 연계하는 국민행복연금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 민행복연금 도입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 상 모든 노인들이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개 집단으로 구분돼 매달 4~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기준 하위 70% 노인(317만 명)들은 현재 받고 있는 기 초노령연금의 두 배 정도 되는 20만원씩을 매달 지급 받게 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101만 명)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4~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또한 현 재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득 기준 상위 30% 노인 중 국민연금 가입자(79만 명)는 4~10 만원, 미가입자(101만 명)는 4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연금 방안이 발표되자 각계 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기초연금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 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역차별을 함께 고 려한 기초연금 구조가 문제가 되었다. 즉, 소득 기준으 로는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이 더 많이 지급되도록 제도 가 마련되었지만,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 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도 문 제가 되었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 연금으로 확대하면서 부족한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 기 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의 임의 가입자가 대 거 탈퇴하는 등 후폭풍이 일기도 했으나,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재원을 세금으로 한정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 이 일단락 되었다.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소요예산 및 재원

(억워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예산	22,094	34,106	37,110	37,903	39,725
(비율)	(100)	(100)	(100)	(100)	(100)
국비	15,908	24,659	27,202	28,223	29,636
(비율)	(72)	(72)	(73)	(74)	(75)
지방비	6,186	9,447	9,908	9,681	10,089
(비율)	(28)	(28)	(27)	(26)	(25)

지료 :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나 난항을 거듭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형평성 및 재 원 확보 문제로 시작 전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보건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난 3월 노동계 와 지역 · 소비자 · 학계 등을 대표할 13인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국민행복연금위원 회는 6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현재 5개의 안을 고려 중에 있으며, 7월 11일까지 이를 확정해 정부에 제출 할 계획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고려하고 있는 5개의 안은 ①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인수 위 案) ③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부분¹⁾과 합산해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 ④ 소득 하위 70%에게는 20 만원, 상위 30%에게는 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 ⑤ 최 저 생계비 150% 미만 노인에게만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 등이다.

복지부의 추산에 따르면 각 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2060년 기준 최소 132.5조원에서 최대 300.3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인수위 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매월 4~20만원을 차등 지급할 경우 소 요되는 자금은 2015년 기준 11.0조원, 2060년 기준

273.0조원이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015년 10.7조원. 2060년 271.2조원이다. 이 중 예산이 가장 적게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과 합산 해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3안의 경우, 기존 국민연 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채택될 가능 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소득 하위 70%에게는 20만원, 상위 30%에게는 5만원씩 지 급하는 방안의 경우는 2015년 11.8조원, 2060년 300.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최저 생계비 150% 미 만 노인에게만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의 경우 2015 년 10.3조원, 2060년 140.6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 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든 안들이 장기적 관점 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국민행복연금위원 회는 최종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 난 6월 27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 앙회연합회 등 3개 단체가 기초연금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에 반대하며 국민행복연금위원 회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금지급 대상자에 있어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인

논의 중인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안 비교



현 기초노령연금제도	인수위 案	국민행복연금위원회 案
- 대상자 :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	- 대상자 : 65세 이상 모든 노인	1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
	- 지급액	2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해 차등 지급하는 인수위 방안
 지급액: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수준 (매월 최대 9만 6,800원) 	① 소득 기준 상위 30% ▶ 연금 가입 : 4~10만원 ▶ 연금 미가입 : 4만원	3안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과 합산해 매월 20만원 지급
	② 소득 기준 하위 70% ▶ 연금 가입 : 14~20만원	4안 소득 하위 70%는 20만원, 상위 30%는 5만원 지급
	▶ 연금 미가입 : 20만원	5안 최저생계비 150% 미만 노인에게만 20만원 지급

1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조선일보

1)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소득 비례' 부분으로 구성

가. 아니면 소득 상위 20~30% 노인은 지급 대상자에 서 제외할 것인가, 둘째, 지급방식에 있어 모든 수급자 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차등 지급 할 것인가, 셋째,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할 것인지 여부, 넷째, 현 정부의 상징인 '행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 절성 판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6차례에 걸친 회의 끝 에 이 중 소득 상위 20~30%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것과 급여 수준을 최대 20만원으로 한다는 것, 또한 기존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민행복연금이라 는 명칭을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 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들 간 합의가 도출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급방식에 있어 일괄 정액 지급할 것인지 차 등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원들 간에 의 견이 엇갈리고 있다.

급여 적절성과 제도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

국민행복연금위원 회가 제시한 5개의 안들은 모두 현 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급여 수준을 높인 방안들 이다. 이 중 향후 지속 가능성 고려 시 실현 가능한 방 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거나 최저 생계비 150% 미만 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기초연금법 추진 일정

일자	내용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 방안 발표
3월 20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발족
7월 11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안 정부에 제안
8월 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안 마련
9월	정기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 심의
2014년 7월	기초연금 시행 예정

자료 : 조선일보

다. 두 방안 모두 국민연금 수령자와 수령액이 늘어나 노후 보장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기초연금 재정을 줄 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연금 연계 방안은 국민 연금의 소득 재분배 부분이 20만원에 미달하면 그 차 액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집단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 생계비 150%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 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수급 등을 통해 이들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노인 인구 증가 속도보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낮아져 재정 부담 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 도 높아, 급여 적절성과 제도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 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감안 시 향후 노인인 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예산 부담도 크 게 증가할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세대간 인 식 차이, 국민의 이해 및 신뢰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둘러싼 합의 도출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 다. 하지만 급여 적절성과 제도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 려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 모색 및 국민 설득 작업 등을 통해 급여 수급이 본격화되기 전에 현실을 반영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표를 의식한 정 치 논리보다는 재정을 고려한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 요한 시점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도입 주요 쟁점

구분	내용
대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 or 소득 상위 20~30% 노인은 제외
지급방식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액수 지급 or 수급자별 차등 지급
국민연금 수급자 차등 지급 여부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차등 지급 여부
명칭	현 정부의 상징인 행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판단

자료 : 조선일보



한국 여성의 노후준비 상황과 시사적

연구원 최 현 우 (hwchoi@hanafn.com)

"최근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비중이 확대되는 등 노후소득에 대한 여성의 관심과 준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 짧은 경제활동기간과 상 대적으로 긴 기대여명으로 인해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과거와 달리 자식 세대로부터의 노후소득 지원이 어려워 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여성 스스로 그리고 남편과 함께 부 부 공동으로 노후소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장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구체적으로 2011 년 통계청의 간이 생명표에 따르면. 평균 남성의 기대수명은 77.7세 여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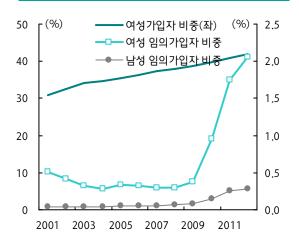
84.5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6.8년 장수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최근 10년간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이 여성보다 2.9세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 평균적으로 노년에 여성은 남성과 사별한 후 10년 정도 더 생존한 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10년간의 생활비가 더 필 요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 여성 은 남성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경우가 많아 노후준비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가 일반화 됨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여성의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최근 노후준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에 전업주부 등 여성 임의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실질 적인 노후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매우 부실한 여성의 노후소득구조

은퇴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 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 비중 추이





l 자료 : 국민연금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계 청이 실시한 2011년 노후준비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9%의 여성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방법 으로는 국민연금, 예금·적금·저축성보험, 사적연금을 들고 있어 어느 정도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성에 비해 준비 수준은 낮은 편이며, 특히 60대의 경우는 노후준비의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율이 37%에 그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 된 국민연금을 통해 여성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노후소득도 열악한 수준 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0%는 근무기간이 40년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0년 수준인 근속년수와 여성으로서의 특 수성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은 더욱 낮아진다.

최근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인력개발기관 이용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근무경험이 있는 여성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8.4년이 며, 출산 · 육아로 인한 평균 경력단절 기간은 4.5년으 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까지 감안 하면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10%p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말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55세 이상 여성 중 20년 이상 가입 한 여성의 비율은 1.1%에 불과하고 평균적으로 1인 가 구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약 50만원을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다. 78%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국민연 금 지급액은 평균17만원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노후준비 수단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한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 없 이 남성보다 10%p 가량 높은 평균 47% 수준이었다.

성별, 연령대별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

								(%)
¬H	ᅰ	성	별	연령대별				
구분	계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준비하고(되어)있음	65.7	73,2	58.5	48.2	71.1	73.5	66.6	35.1
국민연금	66.8	75.9	56.1	71.6	56.4	57.7	54.8	37.4
기타 공적연금	8.2	8.2	8.2	6.1	8.5	7.8	8.1	10.9
사적연금	29.9	26.2	34.3	29.0	42.4	40.3	29.9	20.7
퇴직금	7.9	9.5	5.9	6.5	6.9	5.9	5.0	4.5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41.6	37.3	46.8	44.9	47.2	44.4	48.4	50.4
부동산 운용	8.9	8.4	9.5	2.0	5.7	8.5	13.6	20.1
주식 채권 등	2.4	2.7	2.0	2.0	2.6	1.9	2.2	0.8
기타	0.5	0.4	0.7	0.0	0.3	0.3	0.6	2.8
준비하고(되고)있지 않음	34,3	26,8	41.5	51.8	28.9	26.5	33.4	64.9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	19.4	24.1	16.5	42.4	17.6	11.5	10.0	4.4
앞으로 준비할 계획	31.9	34.1	30.5	45.5	59.7	47.7	27.9	4.1
준비능력 부족	37.7	34.7	39.5	12.1	22.5	40.3	56.9	55.8
자녀에게 의탁	11.1	7.1	13.6	_	0.3	0.4	5.1	35.7

주) 대상자는 19세 이상이며 복수응답으로 응답합계는 100%를 넘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예적금,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러나 2011년 보건복지부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1,087만원으로 남성의 금융자산 2,338만원의 46%에 불과했다. 여성의 월평균 소비지출금액이 133만원으 로 남성 153만원에 비해 적은 점을 고래해 보아도 여 성의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노후준비에 충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2011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비 중 연금 및 퇴직금의 비중은 30%에 불과하다.

> 여성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노후소득 확보도 어려운

여성이 노후소득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 더라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 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 노동시장은 여 성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경제 활동 실태 및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령자는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유병률 등 건강상의 문제(32.8%)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도 쉽 지 않다. 또한 점차 환경이 변화할 수 있으나 고령자를

국민연금 납입기간별 인원 및 평균 연금금여

납입기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2,748,455명	1,908,505명	839,948명
신세	282,798원	322,473원	192,650원
0017	121,826명	111,909명	9,917명
20년~	668,100원	683,190원	497,809원
100,001	688,986명	512,826명	176,160명
10~20년	364,979원	400,037원	262,921원
- 1013	1,937,643명	1,283,770명	653,871명
~10년	229,351원	260,044원	169,090원

1

주: 2012년 기준 55세 이상 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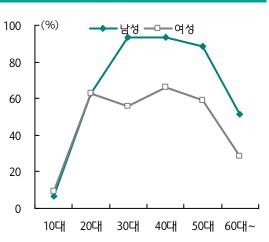
자료 :

선호하지 않는 취업시장(18.4%)의 현황이나 취업 경험 이 없는(4.3%) 등의 이유로 취업이 쉽지 않다.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0대 이후 남성과 큰 격차 를 보이며 상황이 좋지 않다. 여성이 어렵게 취업이 되 었다고 해도,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2011년 기 준 남성이 150만원인 반면, 여성이 38만원으로 취업시 장도 여성에게 더욱 가혹하다. 남성에 비해 임금수준을 비롯해 전체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은 안정 적인 노후 소득원 확보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자녀세대로부터 노후소득 지원도 쉽지 않음

여성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노후 소득은 가족 특히. 자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통계 청의 설문조사에서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여성 중 자 녀에 의탁하겠다고 답한 비중은 14%로 남성 7%의 두 배에 가까웠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 르면, 실제로 여성의 사적이전소득, 즉 지인이나 친척 의 도움을 받은 금액은 연 237만원으로 남성 169만원 에 비해 크다. 그러나 자녀 세대도 경제적으로 부모 세 대를 부양하기 어렵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 이상의 세대는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부양했으나, 자녀 세대에

성/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 : 통계청

노후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역량의 문제를 넘어 부모의 부양에 대한 의식 수준에서 연령에 따라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2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하는 30~40대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역할을 가정뿐이니라 정부 및 사회로 답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판단되며 세대간 의식 격차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크게 나타났다.

개인 차원의 노후소득 구축 노력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 절실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약 45% 수준으로 높아 지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귀속되기 쉬운 한 국 여성의 특성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는 어 려운 상황이다. 또한,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더라도 충 분한 노후소득을 얻는데 한계가 있어 여성에 대한 특 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과거와 같이 자녀 세대 로 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사전준비와 정부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

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

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과정에서 여성이 주요 수혜자인 유족연금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현 제도에서는 노령연금 수급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 연금의 20%를 추가로 받거나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령 연금이 적은 여성 임의가입자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임의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며 보험료만추가로 납입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유럽에서는 두 가지 연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두 연금의 합산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어 이를 참조한 개선을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노후소득을 충분히 적립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는 리스터 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이 은퇴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정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노후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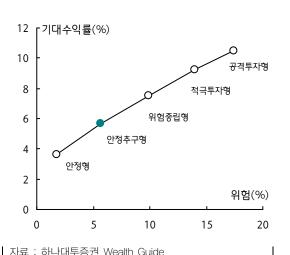
정부뿐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 현재 부족한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운데 장기적 종합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위한노후소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신이 보유한 연금소득, 남편과 사별한 후에 발생하는 유족연금, 보험금, 주거 생활비, 의료비, 요양 간병비 등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보다 명확이 필요한 노후소득을 추산해볼 수 있다. 개인의 추산에 따라 필요로 하는 노후대비 자산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여성 스스로 준비하는 데에는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편은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인을 고려하여 부부 공동의 관점에서 노후소득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 L부장, 현재 금융자산 안정적 운영만으로 노후 준비 충분

L부장은 45세 증권인으로 60세 은퇴 이후의 노 후 생활을 위해 월 3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그런데 은퇴 이후 국민연금으로부터 매월 90만원 정도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또한 퇴직 시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펀드로 부터 각각 54.7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자산을 별도로 활용하지 않고 1억원의 순금융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도 충분 한 노후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수명 85세를 예상하는 L부장의 요구수익률은 약 5.41%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안정추구형 포트 폴리오 전략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안정추구형 폴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주식형보다는 채 권형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최근 미국 양적 완화 종료 우려에 따른 금리변동성으로 채권 투자에 대한 전략 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안전추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지료: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구형 포트폴리오는 국내외 채권형 비중이 3분의 2 정 도에 매우 높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최 근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형의 보유 비중을 크게 줄이고 현금성 투자의 비중을 늘리 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식형에 대한 투자도 변동성에 대비한 비중 변 화가 필요하다. 국내 증시는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뱅가드 매물 완료 등 수급상황 개선으로 점진적 상승 추세가 예상되나 단기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위험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대신 롱숏 전략을 바탕으로 변동성 장세에서 양호한 성과가 예상되는 대안형 투자로서 중위험형 전략의 비 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외 증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 관리를 위한 ELS 등의 대안형 투자는 병행함이 바람직하다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국내주식	0.0(-5.0)	10.0(-5.0)	12.5(-7.5)	32,5	45.0	
해외주식	_	_	12,.5(+5,0)	22.5(+2.0)	25,5(+25)	
원자재	_	_	_	_	_	
중위험형	15,0(+15,0)	15,0(+15,0)	17.5(+17.5)	9.5	9.5	
ELS/ELD	10.0	17.5(+5.0)	17.0(+2.5)	10,0	10.0	
국내채권	40.0(-37.5)	22,5(-25,0)	12,5(-17,5)	5.0(-5.0)	2,5	
해외채권	_	7.5(-10.0)	12,5(-7,5)	10.0(-5.0)	2.5(-5.0)	
현금성	35.0(+27.5)	27.5(+20.0)	15.0(+7.5)	10.5(+8.0)	5.0(+2.5)	

│ 자료 : 하나대투증권 Wealth Guide

노후 재무설계 행복가이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현금성자산 확대 변동성 장세에서 양호한 중위험형 투자 고려

국내주식형은 인덱스형, 중소형주형, 성장형, 가치형으로 분류되나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성장형과 가치형에만 투자한다. 성장형은 장기성장이 기대되는 성장주 및 산업군내 경쟁력 있는 핵심종목에 대한 투자편입비중을 높게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트러스톤제갈공명(주식)A를, 가치형은 저평가된 가치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고 중형가치주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매매회전율이 낮아 장기투자에 적합한 KB밸류포커스(주식)A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안정추구형의 경우 국내 주식형에의 투자비중은 10%에 불과하며 해외주식형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기 위해 중위험형 대안투자를 위해 롱숏전략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와 채권금리 + α 의 수익을 추구하여 변동성 장세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 아50(주식혼합)A를 선정하였다.

국내채권형 투자는 기업 신용분석 및 저평가 종목 발

굴을 통하여 확정금리형 상품 대비 추가수익을 추구하고 회사채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과거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흥국멀리플레이증권4호(채권)에, 해외 채권은 미국 하이일드 채권 및 미달러표시 채권에 주로 투자, 상대적으로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되, 듀레이션을 짧게 유지하여 낮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JP모간 단기하이일드(채권)A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점에서, 채권형의 비중을 줄이는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채권형과 해외채권형의 비중을 각각 47.5%와 17.5%에서 22.5%와 7.5%로 축소하였다.

채권형 투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단기 시중금리를 반영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MMF/MMDA/MMT에 대한 비중을 7.5%에서 27.5%로 크게 증가시켜 만약의상황 변화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한편 증권사 L부장은 연금상품으로 하나UBS인베스트 연금펀드에 가입하여 매월 35만원을 납입하고 있다.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	비중
금융	국내주식	성장형	트러스톤제갈공명(주식)A	트러스톤자산운용	5%
용 자	녹네구역	가치형	KB밸류포커스(주식)A	KB자산운용	5%
산	대안	중위험형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주식혼합)A	트러스톤자산운용	15%
포	네인	구조화	ELS(ELF/ELT)	_	17.5%
트	국내채권		흥국멀티플레이증권4호(채권)	흥국자산운용	22.5%
폴 리	해외채권		JP모간단기하이일드(채권)A	JP모간	7.5%
오	현금성		MMF/MMDA/MMT	_	27.5%
	합계				100%
연금펀드 하나UBS인베스트연금펀드, 매월 35만원 납입					

Ⅰ 주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Ⅰ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상기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자료 : 하나대투증권

첨부: L부장의 재무상황 및 노후 재무설계에 대한 주요 가정

- 1. 증권사 L부장(45세)은 60세에 은퇴하여 85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노후 재무설계를 준비. 은퇴 이후의 물가상승률과 나름대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약 3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2. L부장의 재무상태는 순금융자산이 약 1억원 정도. 실물자산은 약 3.5억원를 보유. 그러나 실물자산은 최 후의 보루로 남겨두어 별도로 실물자산의 일부를 처분 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준비해 온 은퇴 자산과 현재 보 유한 순금융자산의 운용으로만 노후 설계가 충분한지 평가하기를 원함
- 3. 은퇴 후 L부장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월 9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펀드를 통해 은 퇴시점에 각각 1.2억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것으로 예상
- 4.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펀드를 매월 수령할 경우 각각 약 54.7만원으로 계산되어 국 민연금 이외에 별도로 매월 약 109.4만원을 수령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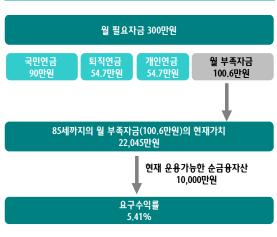
으로 예상

- 5. 월 부족자금 100.6만원은 매월 필요한 생활자금에 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펀드 수령액을 차 감한 금액이며 월 부족자금의 60세 시점의 현재가치 합은 25년간 5년 단위로 4.0%, 3.5% 3.0% 2.5%, 2.0%로 0.5%p씩 차감한 할인율을 적용. 퇴직연금과 개인연금펀드의 월 수령액도 동일한 할인율(수익률)을 고려하여 계산
- 6. 현 시점에서 운용자산 금액은 순금융자산 1억원이 며 요구수익률은 현 시점에서의 순금융자산을 운용하 여 60세 시점에서의 월 부족자금의 현재가치 합이 되 기 위한 5.41%의 수익률로 계산
- 7. L부장은 40대 평균인보다 실물자산과 순금융자산이 1.5~2배 정도 많으며 국민연금 수령액도 많으며 상대 적으로 높은 금액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펀드를 통해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40대 평균인과 L부장의 재무상태 비교



L부장의 노후준비를 위한 요구수익률



┃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7월 주식시장은 양적완화 축소우려로 단기 변동성 확대 전망

월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국면에 돌입 하고 국내 증시도 하락하였다. 또한 삼성 전자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 STX 팬오션 법정관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KOSPI는 1,780pt선까지 하락하는 등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올해 들어 국내증시의 상대적 부진요인이었던 뱅가드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가 7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뱅가드 매물이 일단락되었다는점에서 하반기 수급사정은 상반기에 비해 양호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적 완화 축소 우려의 과도한반응에 대한 반발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1분기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도조정

KOSPI와 상장사 영업이익 추이



된 주가수준에 비해 이익전망치가 견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가는 바닥을 다진 후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시장은 양적완화 축소우려로 금리상승

6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였으며 완만한 성장 경로 전망에 따라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반기 핵심 이슈는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여부이다. 주요국의 유동성 회수 우려로 이머징 통화가치는 약세, 금리는 반등하였다.

국내에서도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량 매도로 금리가 상 승하는 가운데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으로 금리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를 돌파하였다. 한편 장기물 금리가 더 상승하여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되었다. 7월의 금리 움직임은 어느 정도의 기술적 되돌림이 예상되나 방향성은 상승으로 전망된다.

주요 금리 추이



지료 : 금융투자협회, 하나대투증권

노후 재무설계 행복가이드

해외시장은 이머징 시장 부진에 따른 선진시장과의 차별화 지속

미국시장은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Fed가 경기 개선세를 바 탕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점과 향후 경제 전망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양적 완화 축소는 향후 주 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경제전망치 및 물가상승률 하향조정으로 추가 금리인 하 여력이 확대되면서 긴축완화 및 통화정책과 함께 하반기 경제지표 개선 기대로 점진적인 상승흐름이 예 상된다. 일본은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논란, 일본은행의 기존정책 유지 결정으로 시장변동성을 확대시켰고 7월 21일 예정인 참의원 선거에 따른 정책변수로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선거 이후의 성장정 책과 이를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은 기업실적 증가와 탈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주가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 브라질 등 주요 이머징 국가는 미국 출구

미국 실업률 및 노동 참여율 추이



1 자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전략 언급으로 외국인의 자금회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유동성 위축, 경제지표 둔화 등으로 단기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며 인도는 루피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상승으로 주가 상승을 제한할 전망이다. 또한 브라질은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S&P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 등 정부 신뢰도 하락 및 인플레이션 부 담으로 주식시장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원자재 시장은 美 양적 완화 축소 및 경기 개선에 따른 달러 강세가 가격상승을 제한

미국 경기 개선세가 뒷받침되는 달러 강세 흐름은 장 기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 다. 금의 경우 금 ETF가 보유한 금 수량이 여전히 감소 세를 나타내고 주요 금 수입국인 인도가 경상수지 적 자 감축을 위해 수입관세를 인상한 점은 가격에 부정 적인 요인이다. 원유는 중동발 정정불안 요인으로 당분 가 유가를 지지할 전망이나 2013년 EIA의 글로벌 석유 수요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미국 지역 공급 도 확대될 전망으로 부진한 가격 흐름이 예상된다.

금가격과 달러 인덱스 추이



지료: Bloomberg, 하나대투증권

1

국내외 단신 행복가이드



美, 은퇴 계획 수립의 5가지 장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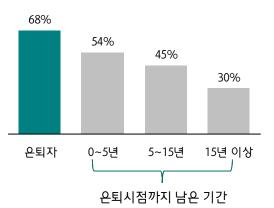
"우리보다 은퇴 시장의 발전이 훨씬 앞선 미국에서조차 다양한 장애 요인들로 인해 42%만이 은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

2011년 중 미국 금융기관들은 은퇴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을 위해 무려 114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무상담사, 설계사, 브로커 등 은퇴상품을 교육하고 마케팅하고 상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 미국 전역에 수 십 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인들의 은퇴준비를 돕는 제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미국인들의 은퇴준비는 부족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보다 은퇴 시장의 발전이 훨씬 앞선 미국에서조차 은퇴준비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규명하기 위해 최근 Deloitte에서는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4,491명의 만 26세 이상의 근로자 및 은퇴자

은퇴 계획을 수립한 응답자 비율





자료 : Deloitte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은퇴 준비의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만이 현재 은퇴를 위한 구체적인 재무적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 은퇴한 그룹의 경우 68%가 은퇴계획을 수립한 반면 은퇴가 15년 이상 남은 그룹은 30%만이 은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그룹의 경우 57%가 은퇴계획을 수립한 반면 연소득 5만~7만5천 달러인 그룹은 39%만이 은퇴계획을 수립하는 등 은퇴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한편 은퇴계획의 수립 여부는 은퇴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계획을 보유한 그룹의 경우 52%가 은퇴 이후의 경제적 삶에 대해 안정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은퇴계획을 보유하지 않은 집단 (13%)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자신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 부족의 주된 장애요인을 무엇일까? Deloitte에서는 은퇴준비보다 앞선 다른 재무적 우선순위, 금융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은퇴상품에 대한이해 부족, 금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 은퇴준비는고객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인식 등 크게 5가지 요

은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



	0 = 1 = 1	은퇴시	점까지 남	은 기간
	은퇴자	0~5년	5~15년	15년 이상
은퇴준비 외 재무적 우선순위 보유	20%	30%	43%	55%
퇴직연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	48%	30%	36%	19%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함	7%	17%	20%	25%
은퇴계획수립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	7%	15%	14%	20%

자료 : Deloitte

인을 은퇴 계획 수립의 장애 요인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응답자의 40%가 다른 재무적 우선순위로 인해 은퇴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은퇴가 15년 이상 남은 그룹의 경우 55%의 응답자 가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타 부채 상환, 자녀교육비 마 련 등이 은퇴준비 보다 재무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응 답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은퇴 준비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자녀양육비 혹은 주택 마련비 등이 꼽힌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설문 대상자의 60% 이상이 최근 2년간 금융기관과 은퇴설계와 관련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해 고객과 금융기관간에 존재하는 커뮤니케이션 장벽이 은퇴계획 수립의 또 다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낮은 고객일수록 금융기관과 접촉한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고객들의 은퇴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낮은 지식 수준이 은퇴계획 수립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주요 은퇴 상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Target Date Fund에 대해 48% 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2%는 들

 CS 한국년 금융상품별 친숙도

 (%)

 (%)

 37
 25

 38
 34

 44

 TDF
 기타 생명 연금 배당주 채권 보험

 ■ 온퇴상품으로 활용
 ● 온퇴상품으로 비적절하다고 인식

 ■ 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함

 자료: Deloitte

주: TDF는 Target Dated Fund를 의미

어 본 적은 있으나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기타 뮤추얼 펀드나 생명보험, 연금상품의 경우에도 상 당 수의 고객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은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으 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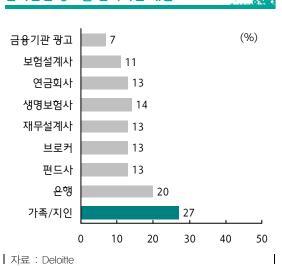
넷째, 금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 또한 은퇴계획 수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계획 수립에 있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가족이나 지인의 조언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57%가 은퇴설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립하기 보다는 스스로 수립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표명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금융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미국 금융기관은 물론 현재 은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고분분투 중인 국내 금 융기관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은퇴시장 공략을 위해 마케팅 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품, 시스템, 인력을 갖추는 것이다.

("Meeting the Retirement Challenge", Deloitte, 2013.4)

은퇴관련 정보를 신뢰하는 채널



국내외 단신 행복가이드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추진

"은행·보험·중권 등 금융영역별로 상이했던 퇴직연금 약관이 단일화, 가입자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퇴직연금 약관은 제도유형별로 자산 및 운용관리약관이 운영되어 총 460여 개의 개별약관이 존재, 금융회사별로 내용이 달라 퇴직연금 가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역별 협회 및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TF를 구성,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표준약관 제정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재 퇴직연금 표준약관 시안은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상태로 향후 금융위원회와 노동부 등 관계당국 협의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견 청구 등 과정을 거쳐 올해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되는 퇴직연금 표준 약관 시안은 2012년 7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내용을 반영하고 지금껏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온 약관 내용을 크게 개선한 게 특징이다.

먼저 근퇴법 개정 내용으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 기여형(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제도에 대한 약관이 마련되었다. 혼합형 제도 도입으로 연금규약에서 근로자와 기업주가 합의하여 설정비율(DB:DC)을 정할 수 있으므로 설정비율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비율을 따르도록 표준약관에 별도로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되 목돈이 필요해 이 계좌를 퇴직 급여가 이전되고 15일 이내 해지하면 수수료를 면제하 도록 했다

다음으로 그 동안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퇴직연 금사업자의 수수료 부과, 퇴직급여 지연 지급 등의 내용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먼저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 별로 수수료 부과방식이 달라, 수수료 비교가 곤란하여 유리한 금융회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수수료 부과체계가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다. 즉, 기존에 은행/증권과 보험사 간에 차이가 존재했던 수수료 부과방식을 적립금 평균잔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수수료 부과대상 또한 적립금 총액기준으로 통일하였다.

퇴직연금 지연 지급에 관해서는 퇴직급여 또는 해지환 급금을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급여를 지연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는 약정금리와 별도로 지연손해금으로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은행·증권사의 약관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단, 다만, 정상적인 펀드환매기간이 7영업일 이상인 경우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퇴직연금 제도유형별로 서로 다르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도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약관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문구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 표준약관 제정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연금가입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적 정 착 및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추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3,7) 국내외 단신 행복가이드



빠른 고령화 진행에 대응하여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사적 연금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 독일의 리스터 연금제도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

지난 6월 24일 한국 연금학회에서는 '고령화 시대 사적연금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독일의 리스터(Riester)연금 제도를 자세히 조망해보고 국내에서도 저소득층의 은퇴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무저축방식의 사적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리스터연금 제도의 주요 특징과 현황에 대해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스터연금 제도는 지난 2001년 공적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은퇴자 증가, 노동 인구 급감 등 인구

리스터 연금제도





지료: 노동부

구조의 변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안정성에 위협을 느껴 연금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보 조금과 세제지원으로 구성된 리스터연금이 도입되었다. 리스터연금의 가입자는 전년도 연소득의 4% 이상을 보험료로 납입해야 하며 정부는 1인 가구당 154유로, 부부는 308유로를 제공하고, 자녀 1인당 300유로를 매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 으로 리스터연금의 계약 건수는 2001년 41.6만 건에 서 2012년 1,567.9만 건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현 재 전체 근로자 중 35%가 자발적으로 리스터연금에 가입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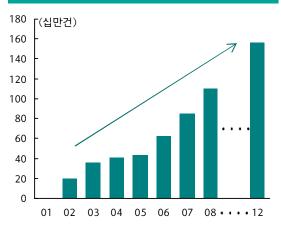
물론 리스터연금은 정부 보조금의 투명성이나 상품의 효율성 등의 차원에서 논란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리스터연금의 도입으로 독일의 경 우 공적연금의 부담이 상당 부분 사적연금으로 이전되 었다는 점이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국내에서도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의 재정 악화를 모면한 독일의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화 시대 사적연금의 역할" , 한국 연금학회 국 제세미나, 2013,6)

리스터연금 계약 건수 중가 추이





Ⅰ 자료 : 노동부, 한국연금학회

연금저축계좌 2013년 새롭게 변경된 연금저축상품

세제혜택이 개선된 新 연금저축상품

2013년 3월 소득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 연금저축이 연금저축계좌라는 상품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정 기간 적립금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기본적인 골격은 기존 연금저축 상품과 동일하다. 다만, 정부에서 개인연금시장의 확대를 위해 기존 연금저축보다 가입조건과 세제혜택, 자산운용방식 등을 가입자 입장에서유리하게 개정한 상품이다.

먼저 기존 연금저축에서는 연금수령은 5년 이상 받으면 됐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소득세 차등적용 및 연금수령한도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납입기간 동안의 소득공제와 연금 수령기간 동안 적용되는 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는 기존 연금저축보다 최소 계약 유지 기간(10년→5년)이 줄어들고 납입한도(분기 300만원→연 1,800만원)가확대돼 보험료 납입이 수월해졌다. 한편 기존 연금저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합해 연간 600만원(매월 50만원)에 불과했던 분리과세 한도를 연금저축계좌에

서는 연간 1,200만원(매월 100만원)으로 확대했다는 점도 큰 개선 사항 중에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금저축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연금소득세를 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질수록 낮아지게 조정하였다. 단, 연금의 장기수령을 권장하기 위해 종전 연금저축에서 5년 이상이던 연금수령기간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15년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가 크게 개선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신탁, 펀드계좌, 보험으로 나뉜다. 신탁과 보험은 원금손실이 없고 예금자보호가 되는 안 정적인 상품이며 펀드계좌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다. 기존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저축계좌에 서는 반드시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할 필요 없이 신탁, 펀드계좌, 보험에 골고루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제도와 비교할 때 연금저축펀드계좌가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하나의 펀드를 골라서 투자했지만 이제는 계좌를 만든 후 여러 가지 펀드를 담아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즉 주식시장의 추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를 원한다면 채권형 펀드의 비

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 비교



구분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제한 없음	
납입요건	납입기간 10년 이상, 분기 300만원 한도	가입기간 5년 이상, 연1,800만원 한도	
연금수령요건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	
소득공제	연간 최대 400만원 이내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동일세율, 종합과세 가능)	연금소득세 3~5%(연령별 차등, 종합과세 가능)	
종합과세 신고대상	연간 600만원 초과(공적연금+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초과(사적연금)	
특별 중도해지	22%	15%	
해지 가산세	가입 후 5년 내 해지 시 2%	없음	

중을 늘리면 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한다 면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늘리면 된다. 뿐만 아니 라 수익을 실현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즉 자산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 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가능해 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데 필수 적인세제혜택 상품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복잡한 세 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에 그 특징과 실 질적인 세제혜택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Happy Together

-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
- 다양한 연금상품에 분산투자
- 분리과세 적용 확대로 절세효과 중대
- 세제상 불이익 없이 계좌이체 가늉

하나대투와 함께하는 행복디자인 연금저축계좌 가입 BIG EVENT!

하나, 신규고객을 위한 EVENT

둘. 계좌이체 고객을 위한 EVENT

월 10만원 이상 : **1만원 상품권 증정** 월 20만원 이상 : 2만원 상품권 증정

1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1만원 상품권 중정**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2만원 상품권 중정**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3만원 상품권 증정 5천만원 이상 : 5만원 상품권 증정

월 30만원 이상 : **3만원 상품권 증정**

▶대상: 2013 6월 말까지 대상편드* 신규가입 및 계좌이제 고객(개입한 편드별 이제금액에 한하여 성품권 지급) * 하나(UBS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뺄쀼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제궁 편드에 한함

1588-3111



행복한 Well-Aging – 치매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노인성 치매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뇌질환

치매(Dementia)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정신이 없어진 것'을 의미한다. 치매는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초로기 치매(pre-senile dementia)와 65세 이후 노년기에 발병한 노인성치매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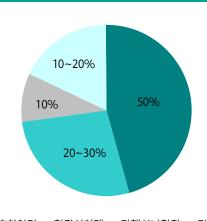
노인성 치매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65세이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되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기억력 장애, 사고판단, 감정조절, 언어능력 등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과거에는 망령, 노망이라고 불렸던노인성 치매를 나이 들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 분명한 뇌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65세이상 노인에서 5~10%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우리나라의 경우약 8.2~10.8%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치매 유병률은 65세기준으로 나이가 5세 많아질때마다 2배씩 증가하여 65~69세의 연령층에서 약2~3%정도지만 연령 증가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며70~74세에서 4~6%, 75~80세에서 약8~12%, 80세이상에서는 20%가 넘는 노인들이 치매에 걸린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 540만명 중 8%에 해당하는 약 44만명이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20년에는 환자수가 약 80만명, 2027년에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알츠하이머와 혈관성치매, 대표적인 노인성 치매

노인성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이다. 알츠하이머는 이상단백질이 뇌속에 쌓이면서 뇌신경 세포가 서서히 죽어나가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며 기억력 감퇴가 먼저오는 것이 특징이다.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으로 뇌가손상되면서 생기는데, 혈관성 치매를 피하기 위해서는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 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를 미연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과는 달리 뇌경색이 나타난후 비교적 빠르게 치매증상이 나타나며 뇌경색으로인해 발음이 잘 안되고 한쪽 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이나타나기도 한다.

치매의 원인



■ 알츠하이머 ■ 혈관성치매 ■ 퇴행성뇌질환 ■ 기타치매

자료 : 하나은행

치매의 중상

인 지	기억력 저하	최근의 말·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한다.
기능	언어기능저하	사물·사람의 이름이 기억 나지 않는다.
변	시간 지남력 저하	날짜와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다.
화	시공간능력 저하	자주 다니던 길을 잃고 헤맨다.
증 상	수행능력 저하	집안의 간단한 도구를 다루지 못한다.
	성격변화	성격이 강해지거나 충동의 조절이 안된다.
행동	우울, 초조	목적 없이 자꾸 임직이며 기분이 쳐진다.
증	무감동, 무관심	관심과 흥미가 없고 의욕이 감소한다.
상	환각	실제로는 없는 소리·사물·사람을 보거나 듣는다.

자료 : 하나은행

인지기능, 정신행동, 신체 기능 저하가 치매의 주요 중상

노인성 치매의 증상은 크게 인지기능 저하, 정신행동 증상, 신경학적 및 신체적 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인지기능 저하 증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억력 감퇴이다. 기억력 감퇴와 함께 언어능력, 시공간파악능력 그리고 판단력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어렵게 된다. 또한 성격변화, 무감동, 우울, 불안, 공격성등 성격이나 정서적인 부분에서 과거와 전혀 다른 공격적인 돌출 행동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운동신경, 감각, 안면 등의 신경학적 마비 증상으로 삼키기 곤란하거나 보행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신경학적 증상은 일반적으로 대소변 실금, 낙상, 욕창, 폐렴, 요도감염, 패혈증을 동반하여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철저한 건강관리·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치매 예방

노인성 치매는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방치할 경우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조기 발견과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 진행속도를 늦춰 최대한 일상생활이 가능 토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 치매가 의심되는 중상을 보일 경우 빨리 전문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 질환 가운데 10~15% 정도

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치매는 철저한 건강 관리와 올바른 식생활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치매 예방은 무엇보다도 금연 · 금주와 함께 걷기 등의 신체 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종교활동 등과 같은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생활

1.운동 - 체력에 맞게 일주일에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2.절식&금연 - 과음, 흡연을 하지 않는다.

3.긍정적인 사고 -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활동을 지속한다.

4.뇌활동 - 독서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등 적 극적인 대뇌활동을 한다.

5.섭생 - 음식은 싱겁게, 채소나 과일을 매일 먹는다. 6.치아관리 - 어금니가 빠지면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 이 커지므로 구강상태를 자주 점검하고 위생을 유지하 도록 한다.

7.손운동 - 뇌가 즉각 반응할 수 있게 가운데 손가락을 자주 마찰한다.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생복디제)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1

식품	유효성분	효과
계란	콜린	뇌의 기억형성을 돕는다.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춘다.
간	비타민B12	뇌의 기능에 관여 기억력 집중력 향상
등푸른 생선	DHA	신경세포 복구 활성화 혈액순환 향상과 혈관 질환 예방
견과류	비타민E	세포를 파괴하는 과산화지질 억제 동맥경화와 슬픔 방지
콩제품	레시틴	혈관벽의 콜레스테롤 분해 동맥경화 방지

자료 : 하나은행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 ॥

식품	유효성분	효과
대파	인지질	뇌의 신경세포를 지키고 있는 세포막의 하나
양파	케르세틴	혈전방지, 혈관 확장, 혈액 순환
구운 마늘	메라노이진	집중력·기억력 강화
참깨	비타민E,B12	뇌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켜 치매방지
표고버섯	에리타데닌, 휘토스데리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혈압 감소로 치매 방지

자료 : 하나은행

1

하나은행-하나SK카드, 해피포인트 더블 체크카드 출시

하나은행과 하나SK카드는 SPC그룹과 제휴를 통해 해 피포인트 가맹점에서 현금 캐시백 20%와 해피포인트 5%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하나SK 해피포인트 더블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동 카드는 해피포인트 혜택 이외에도 하나은행 거래수수료 월 10회 면제, 월 30만 원 신용한도 하이브리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대투증권, VIP 고객초청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하나대투증권 PB사업부는 VIP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 리 세미나를 지난 26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 최했다. 동 세미나는 최근 국세청 세무 조사 방향과 이 에 따른 절세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어 VIP고객들의 만 족을 이끌어 냈으며, 향후에도 소규모 절세 세미나를 통해 VIP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갈 예정이다.



외환은행, 외환카드와 두배로 COOL하게 즐기는 SUMMER 이벤트 진행

외환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환카드와 두배로 COOL하게 즐기는 SUMMER 이벤트를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속도로휴게소 사용시 캐시 백 서비스, 해외여행 시 주요 항공사 무이자할부 등 여 행과 관련된 혜택과 제휴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 시 상 품권 증정 등 쇼핑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생명, 장애인·고령자 위한 홈페이지 새단장: 웹접근성 인즁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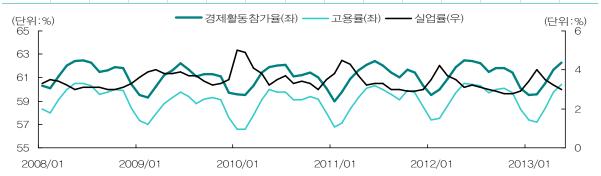
하나생명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자사 홈페이지를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웹접근성 인증마크(WA)를 획득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 편으로 일반사용자는 물론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들 도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화면내용을 음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등 높은 웹전근성을 갖추게 되었다.



경제 활동 **F** F/n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8	61.5	6.5	63.6	75.2	80.1	72.0	37.7	59.5	5.9	59.1	72.9	78.4	70.6	37.2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1~5	60.7	7.7	61.3	74.9	79.5	73.5	37.4	58.6	6.7	56.4	72.6	77.7	71.9	36.4
2013.4	61.7	6.3	61.5	75.7	80.1	74.9	40.2	59.8	5.5	56.5	73.4	78.3	73.5	39.7
2013.5	62.3	6.8	62.3	75.6	80.4	75.4	41.6	60.4	6.1	57.8	73.3	78.7	74.0	40.9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己王	5/16/1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가입자	가입자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3	20,264,277	1,223,067	11,533,221	8,437,985	1,932,246	6,505,739	197,576	95,495
2013.4	20,350,576	1,237,842	11,658,510	8,400,258	1,927,548	6,472,710	194,145	97,663

2. 2013년 4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어의)

주택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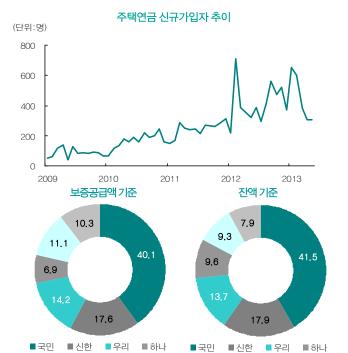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건, 억원)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12	1,124	17,474
2010.12	2,016	30,361
2011.12	2,936	41,000
2012.12	5,013	69,006
2013.1~5	2,246	27,618
2013.4	308	3,188
2013.5	305	3,082

2. 2013년 5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익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1,237	78,607
신한은행	535	33,868
우리은행	439	26,027
하나은행	212	18,169
농협	342	17,635
기타	316	15,053
합계	3,082	189,360



■농협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기타

1. 2013년 3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거)

		(5,-												
그ㅂ		근로	르자		사업자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7,327,399	5,053,062	1,222,478	85,704	1,180,011	77,962	90,077	43,758						
생명보험	2,974,345	2,696,354	169,261	3,604	208,511	70,411	15,390	1,781						
손해보험	1,011,189	952,680	55,033	252	21,822	1,933	16,338	223						
증권	2,593,903	2,347,706	136,080	278	119,134	2,931	6,228	148						
근로공단	68,384	_	66,681	477	20,342	_	20,116	226						

■기타

■농협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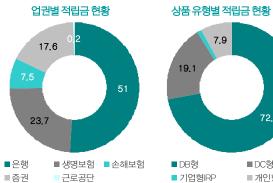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E	난독도입	기업형IF	(기 <u>교, ※</u>
下正	G/1I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10	189,644	64,139	33.8	4,142	2.2	92,215	48.6	29,148	15.4
2012.11	194,209	65,531	33.7	4,129	2.1	95,317	49.1	29,232	15.1
2012.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1	207,319	69,012	33.3	4,641	2.2	103,716	50.0	29,950	14.4
2013.3	215,962	70,868	32,8	4,924	2.3	109,820	50.8	30,350	14.1

^{* :} 금융당국의 자료공개 주기 변경으로 향후 분기별로 작성될 예정

연금통계 행복가이드

3. 2013년 3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687,349	495,243	131,285	6,616	54,205
은행	350,236	220,867	85,401	6,416	37,552
생명보험	163,089	137,791	18,168	160	6,970
손해보험	51,870	45,802	4,236	10	1,822
증권	120,932	90,782	22,278	18	7,854
근로공단	1,223	0	1,203	13	7



■ DC형

4. 2013년 3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개인형IRP (억원, %)

	구분		DB	형	DE	형	기업형	g IRP	개인형	IRP	계	
		⊤世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예적금	249,611	50.4	78,392	59.7	5,767	87.2	34,549	63.7	368,319	53.6
		금리확정형보험	170,512	34.4	13,195	10.1	111	1.7	6,980	12.9	190,798	27.8
		금리연동형보험	24,067	4.9	4,616	3.5	52	0.8	1,181	2.2	29,916	4.4
워		국채	529	0.1	1,109	0.8	0	0.0	1,641	3.0	3,278	0.5
원리금보장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모		기타정부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장		원리금보장ELS	35,090	7.1	1,944	1.5	0	0.0	2,391	4.4	39,425	5.7
		RP	7,733	1.6	1,575	1.2	1	0.0	827	1.5	10,136	1.5
	E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31	0.1	0	0.0	35	0.1	166	0.0
	기타		12	0.0	66	0.1	0	0.0	27	0.0	105	0.0
	원리보장금 소계		487,554	98.4	101,028	77.0	5,930	89.6	47,631	87.9	642,144	93.4
	실적배당형 보험		166	0.0	1,556	1.2	9	0.1	350	0.6	2,082	0.3
		주식형	833	0.2	8	0.0	0	0.0	8	0.0	849	0.1
		혼합형	1,116	0.2	13,321	10.1	187	2,8	1,398	2.6	16,023	2,3
실	입 합	채권형	2,762	0.6	12,660	9.6	414	6.3	2,004	3.7	17,840	2.6
실적배당	집합투자	재간접	1	0.0	173	0.1	0	0.0	25	0.0	199	0.0
당	증권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344	0.1	537	0.4	33	0.5	40	0.1	955	0.1
		집합투자증권 소계	5,211	1,1	28,255	21.5	643	9.7	3,827	7.1	37,946	5.5
		직접투자	223	0.0	100	0.1	0	0.0	261	0.5	585	0.1
	실	적배당 소계	5,444	1.1	28,355	21.6	643	9.7	4,088	7.5	38,531	5.6
	디	내기성 자금	2,245	0.5	1,902	1.4	42	0.6	2,485	4.6	6,674	1.0
		총계	495,243	100.0	131,285	100.0	6,616	100.0	54,205	100.0	687,349	100.0

5. 2013년 3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억원, %)

Ī	구분	은행		생명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지공단
	TE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330,498	94.4	156,176	95.8	50,866	98.1	103,397	85.5	1,206	98.6
	실적배당형	16,266	4.6	6,175	3.8	801	1.5	15,283	12.6	7	0.6
	기타	3,472	1.0	738	0.5	203	0.4	2,252	1.9	9	0.8
	합계	350,236	100.0	163,089	100.0	51,870	100.0	120,932	100.0	1,223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www.hanaif.re.kr



